

법 어

제20대 국회 정각회 개원법회에 참석하신 국회의원 여러분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정치지도자의 모범을 보여 온 정각회의 소중한 역사를 이어, 국가 발전과 민생 안정 그리고 지역 발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여러분께 격려의 마음 또한 가득합니다.

‘훌륭한 인물을 뽑는다’는 의미로 ‘선량(選良)’이라는 말이 있으며, 현시대에는 국회의원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성품이 어질고 품행이 바르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청렴한 인물이 조정에 나아간다는 말이었기에 깊은 의미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되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0대 국회는 어느 한 정당만이 아니라 여야 모두가 조화롭게 국정을 이끌어 달라는 국민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깊은 듯합니다. 서로 타협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민생을 우선해 달라는 가장 솔직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마침 우리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세계열강의 각축장이 될 우려 속에서, 남북 관계 또한 긴장과 불안한 기운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갈등의 해소는 민생의 절실한 바람입니다. 국민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평화로운 가운데, 일상의 삶에서 사소하더라도 웃음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정치 지도자가 바로 선량(選良)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는 정법에 따라 이상 국가를 실현하는 전륜성왕(轉輪聖王)의 공덕과 선행에 담긴 정치지도자의 핵심 덕목과도 같습니다. 모든 중생을 친자식처럼 보살피고, 사람들을 절대 속이지 않으며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갈라져 있는 사람을 화해시키며 시비와 선악을 분명히 가리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가까이하며 선과 악,

정의와 불의에 대해 검허하게 청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항상 명심해야 할 일이면서도, 불자로서 수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정각회의 자긍심으로 먼저 삼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민족의 평화와 공존에도 정당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분별을 버리고 나면 선량의 자질을 이미 갖춘 여러분은 쉽게 전륜성왕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선택을 바라던 그때의 마음, 국회에 등원하던 첫날의 초심을 계속 지키겠다는 서원으로 임하시면, 부처님의 으뜸가는 제자로서 아무런 손색이 없는 참다운 불자가 되실 것입니다. 불자의 자부심과 당당함으로 국가 발전과 민족 번영,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크게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지역의 신뢰를 넘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지도자가 되는 길을 환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20대 국회 정각회의 개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인연이신 주호영 정각회장님과 임원진의 취임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제19대 국회 정각회 회장으로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불교와 전통문화를 한시도 마음에서 놓지 않고 세세히 살펴주시며 우리 곁에 항상 계셨던 강창일 의원님과 정갑윤 의원님께 깊은 고마움을 드립니다.

정각회의 공덕과 발원으로 모든 분들께 지혜광명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2016)년 9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